



큰스님 1백여분 한자리에 나투시다

직지사 '고승진영전'...11월 20일까지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 스승의 형체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 스승의 정신이다. 스승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형식의 바깥 유무의 사이에서 구해야 한다."
(청암사 용암 채정 진영의 친문 중에서)
구도의 길을 치열하게 걸었던 수행자들, 조사의 반열에 올라 신앙의 대상이 된 고승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삶과 정신은? 이런 궁금증을 한번쯤 가져본 사람이라면 김천 직지사에 가볼 일이다. 지금 그곳에는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직지사 설립전 앞, 등산복 차림의 여성불자 6명이 전시장을 기웃거리다. 그 중 50대 중반의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은 신문 기사를 꺼내놓고 안내자에게 다가간다. "옛 스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 맞죠?" 고승 진영 전시회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건네 주며 안내자가 한마디 거른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전시회입니다. 고승들의 진영을 한 두 점씩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사진이 아닌 실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상한 안내를 받은 이 보살은 일행들의 소매를 잡아준다. 몇 명이 눈치를 살피며 틈을 들이지, 때를 놓치지 않고 안내자가 결정타(?)를 날린다. "일단 한번 관람해 보세요. 보시고 맘에 안 드시면 환불에 드리겠습니다."

전시장에 발을 디딘 일행들은 특이한 전시 기법에서부터 압도당한 모습이다. 투명한 사각형 기둥속 하얀 천을 부과한 은은한 조명은 마치 스님과 마주 서 있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생동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어 관람객들은 무심 스님의 안내로 100여명의 선사들이 한자리에 나뉘는 '고승의 숲'을 거닐며 깨달음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진영은 일본 고신지(高山寺)에 소장된 것으로 우리 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원효·의상대사. 두 스님의 진영이 모두 20세기에 그려진 것을 감안하면 이 진영은 획기적이 자료이다. 학자적인 모습의 의상과 막힘 없는 보살형을 행했던 원효의 모습을 비교하며 감상한 이들은 '보조국사 자눌 진영과 사명당 대장 진영' 앞에 선다. "현존하는 진영 가운데 제작 시기가 가장 앞설 뿐 아니라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는 무심 스님의 설명에 모두 황눈이 된다.

이어 이들은 지공·나옹·무학대사 등 여말선초의 고승들을 함께 풍만한 신록사의 삼화상 진영, 여러 명의 고승을 한 화면에 그린 군상 형식의 직지사 조사당, 초의 선사의 친필과 낙관이 있는 선암사 금암당 진영 등 94점과 고승들의 유물과 관계자료 19점을 빼놓지 않고 관람한다. 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진영은 현재 10점 정도 전하지만 인물, 자세, 장삼, 가사 등이 서로 다르게 표현돼 같은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 진영의 소품을 통해 고승의 사상을, 배경 그림을 통해 법호와 일화를 알 수 있다는 등의 무심 스님의 설명도 중간중간 이어져 진영 이해의 폭을 넓게 해 준다.

1시간 가깝게 전시장을 관람한 이들은 "천년동안의 고승대역 스님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자리를 뜰 줄을 몰랐다. 이 고승 진영 전시회는 11월20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국보급 대각국사와 의천 스님의 금란가사도 전시되지만 어렵게도 20일 까지만 볼 수 있다. 한편 직지사 성보박물관 측은 전시회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을 도록으로 출간, 판매하고 있다. (054)436-6009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고승진영이란

조사신앙 표현 종교미술
조선후기 진영제작 활발

선종 중심의 우리 나라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스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추모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 진영(眞影)이다. 따라서 진영은 일반 초상화와는 달리 불교의 조사신앙을 표현한 종교미술이다. 선사가 입적하면 화가를 불러 진영을 그린다. 가사 장삼을 입고 주정이나 염주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고승진영의 공통점이다. 자세는 의자에 앉은상과 가부좌상이 있는데, 조선 전기 이전의 진영이 의자상이다. 또 그림 오른쪽이나 왼쪽 위에 길게 스님의 존호를 밝힌 영재를, 위쪽이나 별도의 칸을 만들어 재찬을 적었다. 제작연대나 제작자를 밝힌 화기가 적혀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진영은 사찰의 비보(秘寶)로서 스님이 돌아가신 기일과 차례 때만 볼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진영의 대다수는 조선후기에 활동했던 스님들을 그린 것들이며, 가장 오랫동안 사찰에서 숭배되었던 스님은 원효와 의상 스님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진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을 일본 고신사에 봉안돼 있는 원효와 의상 진영이다. 현존하는 두 스님의 진영이 20세기에 그린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자료이다.



생동적 전시방법 스님들과 마주선듯 '시선고정' 의천스님 금란가사·초의선사 친필 등 귀한구경



◇직지사 고승진영전은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구도자들의 풍모와 정신세계를 실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마 구이

"사명대사님! 큰일 났습니다. 식량과 무기를 탈취 당했습니다. 벌써 이틀씩이나 굶주리고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평양성 탈환을 위해 1,500명의 승군을 이끌고 달려온 사명대사는 할 말을 잃었다. 관아의 관군은 모조리 도망친 터였기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스님은 다만 "잘 알았소. 부처님 은 우리가 왜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요. 3일만 더 버텨도 화공으로 왜군을 무찌를 터인데..." 하며 아쉬워했다.

깊은 밤, 잠을 못 이루던 사명대사가 표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아이미다 불"을 되뇌며 대동강변 모래밭을 걸을

피부미용에 효과...설사 그치게

때였다. 발바리에 채이는 덩어리를 담겨보니 고구마 같은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닌가. 급히 비장과 수하스님을 불러 밤새 채취한 그것은 마, 신비의 산약이었다. 마죽을 배불리 먹은 승군은 다시금 활가를 되찾았고, 승군이 허기에 지쳐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밤에 기습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조선의 국운을 건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마'는 사찰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 종류도 마늘, 마늘, 마름, 마구이, 마박무침 등 다양하다. 오래된 마는 산삼의 효능에 비견될

정도이다. 마를 넣은 밥이나 죽도 좋고, 또 가능케 채를 쓴 마를 살짝 구워 잘게 부순 뒤에 김이나 다시마 등을 넣어 초무침을 하면 상큼한 맛과 함께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입맛이 없고 피로할 때, 몸이 냉한 여성이나 아이들에게는 두유를 이용한 마두유수프가 좋다. 이외에도 신경통, 기침, 가래에는 마 20g에 물 3컵의 비율로 달여서 물이 절반으로 줄 때 식전에 복용하면 효험이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마 1개, 참기름 약간.

요리법 마를 원뿔 크기로 어슷하게 썰어서 참기름을 두르고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효능 ① 정신쇠약,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② 야노증, 당뇨에 좋고 지사제에도 쓰인다.